

기사 수배 전화, 이제 그만.

아스콜은 사무기기 관리사를 위한 **AS 기사 매칭 플랫폼**입니다.

AS 요청을 올리면 그 지역 기사들이 지원하고, 관리사는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.

이렇게 돌아갑니다

AS 접수 > 기사 지원 > 기사 선택 > 방문 · 보고서 > 정산 확정 > 본사가 기사에게 입금

관리사가 얻는 것

손이 모자랄 때, 거래처가 멀 때

명단 뒤지고 전화 돌리는 대신 접수 한 번. 내 지역 기사가 알아서 지원합니다.

기사를 믿고 맡길 수 있게

모든 작업에 **사진 2장 + 고객 서명** 보고서가 남고, 접수부터 입금까지 **발자취**가 기록됩니다.

정산은 본사가

포인트로 미리 충전해 두고, 보고서를 확인한 뒤 **[정산 확정]**만 누르면 기사 입금은 본사가 처리합니다.

거래처 정보는 안전하게

거래처 상호·연락처는 **매칭된 기사 한 명에게, 방문 전날부터만** 보입니다. 목적 외 사용은 즉시 영구 탈퇴.

비용

가입비 · 월회비	없음
플랫폼 수수료	기사 지급액 기준 월 누적 100만원까지 10% · 500만원까지 8% · 그 이상 5% — 한 번 내려간 비율은 유지
기사 부담	없음 (작업비 전액 지급) — 그래서 기사가 모입니다
차감 시점	관리사가 [정산 확정] 을 누를 때만 포인트 차감 · 기사 입금은 다음 주 월요일

시작하기 — 5분

1

biz.ascall.net
가입 (사업자번호)

2

본사 승인
(하루 안에)

3

포인트 충전
(계좌 입금)

4

AS 접수
→ 기사 지원